

깨어있는(?) 삶



모든 삶은 요가이다

만약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가 서로 서로 점점 더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 사실이라면, 오로빌이야말로 당연히 그 正道위에 서있는 것이겠지요! “모든 삶은 요가이다.” 라고 오로빈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로빌리언중 누구도 그가 이에 전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우리의 내적 자아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서로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우리의 주변 세계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끝없는(!) 깨어남과 성장의 훈련을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통합으로 이끄는 연습 *Exercitium ad integrum*

어떤 것이든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맨먼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영적인 모든 장비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한 우리 스승의 말씀을 이해하고서, 대부분의 우리는 커다란 활력, 열정, 열망을 갖고, 그가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준에 맞추어 오로빌의 점진적인 의사소통의 소용돌이로 뛰어 들어갑니다.

모든 삶은 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방심할 수 없는 점과 어두운 부분들

여기 현지에 바로 있던 멀리서 오로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든, 오로빌 기능에서 이 공동체적인 측면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며 누구든 진정으로 관련된 사람에게 자비롭지는 않습니다. 감격에 젖어서 세계 도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오로빌의 에너지 장은 인간의 유약함, 인간의 약점, 인간의 방심할 수 없는 교묘한 점과 어두운 부분, 인간의 겉보기와 비현실성을 드러냄으로써 지독히 무자비하고, 노골적일 수 있습니다. - 이는 주로 그 자신에게 드러나지만 가끔은 공동에게 전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로빌에서 자신을 기만하거나 남을 기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장의 가능성

“문제는 없습니다,” 마더는 말씀하시길, “성장의 가능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은쟁반이든, 녹슨 쟁반이든, 흠을 구워 만든 접시든, 아니면 플라스틱 쟁반에 놓여있든, 이것이 사람이 매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 통과하도록 작업되어야 하고, 의식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그 자신의 약한 부분. 확실히 통합요가의 초기 단계에서는 밖에서 투입되는 것이 아닌 것보다 더 많으며 일반적으로 그의 환경을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로빌에서의 충돌이 때로는 격렬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충전된 에너지 장

물론 모든 오로빌리언들은 어딘가에 그의 숨겨진 문제를 깨닫는 과정이 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이천여 명의 거주민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서로 다른 교육 배경과 각기 다른 (업의) 나이와 문화를 갖고 왔으며, 그들 모두가 강한 개인들(아니라면 그들은 오래 전에 더 쉬운 장소를 찾아 떠났겠지요), 모두 꾸준히 그들의 희망과 아이디어와 결점을 서로에게 투사하고, 모두가 아직까지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비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높은 음표와 낮은 음표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가능한 높낮이를 갖고 있는 고도로 충전된 강력한 에너지 장이며, 영구한 의사소통의 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의식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의해 이끌어진

이 모두를 보급하고, 아니 이 모두를 차라리 끌고 있는 것은

오로발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영성의 부드럽고, 미묘하며, 엄청나게 힘있고, 가슴 두근거리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인도의 고대 문명인과 영원한 성향에 의해 양양되고 증대되었습니다. 어디든 언제든 수용적인 영혼이나 상황이 발견되면, 이것은 가득찰 때까지 활동합니다.